



한국쓰리엠지회 창립 300일 기념행사

탄탄한 조직력과 단결력으로 모범적인 노동조합 기틀 다져

지난 3월 10일, 화성공장에서 창립 300일 기념행사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는 우리 노동조합 창립 이래, 처음으로 나주와 화성의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다.

이날의 벽찬 감동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박근서 지회장의 투쟁사를 시작으로 나주와 화성 울동패와 풍물패의 환상적인 무대가 이어졌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실

내로 자리를 옮겨 레크리에이션 및 조합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쓰리엠지회의 지난 당당한 역사를 담은 한편의 동영상 제작물 상영을 통해 조합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앞으로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행보의 새로운 다짐들을 굳건히 했다.

조합원 가족들을 모두 초대하여 축제의 잔을 드높일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단협 41차 화성교섭

3월 11일 화성에서 41차 교섭이 이어졌다.

교섭이 시작되고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을 되짚었으며 조합은 소식지 76호에서 요구했던 6가지 요구사항들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는다면 파업을 하지 않고 전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근서 지회장은 “오형탁 부지회장이 경비들로 인해 현재 큰 수술을 마쳤다. 사건이 터지던 날, 용역들한테 끌려나가는데도 사무실 직원들 모두가 서커스 보듯 구경하고 오히려 경비들을 보호하더라. 이것이

한국쓰리엠의 모습이 다” 라고 안타까워 했다.

우리 조합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듯, 회사가 단체협약 일괄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조합이 먼저 수정안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집중교섭을 하든지, 조항 조항 검토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광전지부 권오산 부장은 추후에 있을 교섭 방식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고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했으며, 교섭방식은 추후 42차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월급받고 생리대 배달

3월 11일 000 조합원이 현장 탈의실에 생리대를 가지러 가는 중이었다.

헌데 아이디 카드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회사가 300일 행사에 앞서 의도적으로 막았던 것.

이에 어쩔사리 이런 사정을 이병익에게 얘기하자,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무엇인가 담긴 봉투를 000 조합원에게 전달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이러 봉투를 받아든 000 조합원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 내용물은 출입 가능한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생리대였던 것.

이병익이 여자탈의실까지 들어가서 000 조합원 생리대를 봉투에 담아왔다는 얘기다.

여성 조합원 혼자 현장에 들어가서 무슨 행패를 부린다고 출입까지 막고 생리대까지 꺼내오는 모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 조합에 대한 분명한 모욕이며 노사 관계를 떠나 정말 몰상식하고 성차별적인 행동이다. 즉각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적반하장이 이런 것이다 !

4조 3교대 강제 실시! 용역깡패 동원! 막장횡포 노동탄압!

개인동의 없이 4조3교대 안하겠다??

멋대로 근무변경 시켜놓고 무노동 무임금 적용

회사는 함께가는 길 61호를 통해 개인 동의없이 4조 3교대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니 조합원에게 4조 3교대 거부를 지시하지 말라며 위선을 떨었다. 11일 41차 교섭에서도 사측대표들은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마스크 현장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했다. 이처럼 개인의 의사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강제로 진행한 근무편성에 대하여 “함께 가는 길”에서 조차 회사는 거짓 보도를 한 것이다.

현재 마스크 부서는 회사의 강요로 조합원들이 4조 3교대를 실시 중이며 개인의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자신의 근무시간에 출근한 조합원에게 4조 3교대를 적용하여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주말에 쉬는 것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조합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시킨 것이다.

초다국적 기업, 인간중심 경영??

한국쓰리엠 임금체불이 웬말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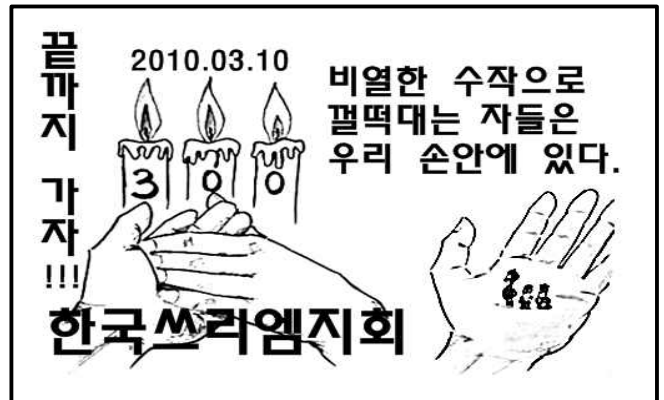
“함께가는 길”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4조 3교대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호언하던 회사가 그 뒤로는 이렇게 남 부끄러운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덕 경영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발행한 4조 3교대 거부의 투쟁지침을 실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인 투쟁지침을 중단하길 요구하고 조합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조합은 4조 3교대 강제 진행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시킨 사실을 상당히 혐오하며 미지급 임금을 추가 지급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물으며 조합을 우롱하지말고 정당한 임금이나 제대로 주길 바란다.

경비업법 위반 용역깡패 철수하라!

욕설하고 위협하는 경비를 아끼는 회사

경비 업무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경비업법을 모조리 위반하는 노동탄압의 사냥개들이 깡패가 아니면 무엇인가?

노사분규 사업장 내의 경비업법 상, 경비가 사용자의 지시가 있다해도 노사관계에 개입해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경비업무를 벗어난 것이다. 설사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이 저지하는 것이다. 법은 경비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런 용역깡패들로 인하여 화성공장 오형탁 부지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연골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마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 한번도 오형탁 부지회장의 사건에 대하여 사과와 해명없이 용역들을 감싸돌고 있다. 한국쓰리엠 사원은 한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선전하는 회사는 우리보다 용역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있다. 그 뿐인가? 해고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법을 위반한 용역깡패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한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현장에서 끌어내는 것도 부족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침입하여 해고자를 끌어내려 했다. 회사는 이들을 깡패라고 몰아부치지 말라고 하지만 이 경비들이 조합원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은 왜 저들을 깡패라 부르는지 바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공장 직원들은 이미 경비들이 경비업무를 벗어나서 마스크 박상훈 이사의 보디가드가 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죄진 것이 얼마나 많길래 마스크 사무실 입구에도 박상훈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배치하고 마스크 현장입구 역시 출입문 뒤편에 배치하여, 출퇴근 하는 조합원들이 이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며 위협을 받고있고 이젠 현장까지 경비들이 드나드는 실정이다.

이 무슨 창피한 일인가? 경비들을 현장에 들여보내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박상훈의 훌륭한 리더십에서 나온 생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경우, 경비업자가 시설주의 관리권을 벗어나 노조원, 민원인과의 충돌 등 타인의 권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